

고려해운

5,000TEU급 컨테이너선 발주

고려해운(대표 박정석)이 마침내 매출 1조원 기업의 반열에 올랐다. 고려해운은 12월 10일부로 2012년 매출액이 원화 기준 1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인트라아시아 최강의 선사로서 해운업계에서는 보기 드문 27년 연속흑자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고려해운이 1조 클럽에 가입함으로써 내실과 외형적 성장에서 모두 성공을 거둔 모범적인 해운회사로 다시 한번 평가 받게됐다.

고려해운은 전년도인 2011년에 매출액 9,521억원을 기록하여 올해 1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견되었지만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세계 물동량 둔화, 고유가 기조, 선복과잉과 과당경쟁으로 인한 어려운 업계의 영업환경 속에서 그 성과를 거두게 되어 의미가 더욱 깊다는 평가다.

매출액 1조원 달성을 자축하며 고려해운은 'KMTC 1조 데이' 기념식을 12월 10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STX팬오션

2013년 시무식 거행

STX 팬오션(대표 배선령)은 1월 2일 오전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STX남산타워 본사에서 본사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시무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배선령 대표이사 사장은 2013년 시무식사를 통해 2009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기 불황속에서도 부단히 노력한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회사가 처한 상황에 대해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생존을 위한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해야 하며, 끝이 보이지 않

는 불황에 맞서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배선령 사장은 현재의 불황에 맞서기 위해 생존의 지도를 제시하고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자며 ▲ 수익을 동반한 지속 성장 ▲ 현금흐름의 안정화 ▲ RISK 관리 체계 재정립 ▲ GLOBAL NETWORK 재정비 ▲ LEADER의 역할을 주문했다.

배선령 대표이사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믿음이며, 지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내 옆에 있는 동료에 대한 신뢰가 함께할 때만이 지금의 높은 파도를 헤쳐 나갈 수 있고 “회사 최고의 가치는 오래 기간 한국 해운을 선도해 온 임직원임”을 강조하며 시무식사를 마무리했다.

장금상선

미카와항-러시아항로 개설

장금상선(대표 정태순)은 일본 미카와항(三河港, Mikawa Harbor)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간 신규 컨테이너항로를 개설했다.

서비스 개시 제1선인 338TEU급 'KHARIS VENUS'호가 지난 1월 25일 일본 미카와항에 입항했으며, 중간 기항지 없이 두 항만이 다이렉트로 연결된다.

이번 서비스는 부정기적으로 운항되다, 점차 서비스 빈도를 높혀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KSS해운

3분기 영업이익 14% 증가

KSS해운(대표 윤장희)이 12월 20일 LG상사와 112억원 규모의 운송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기간은 2013년 1월부터로, 1척의 선박을 1년간 화주에게 제공해 ETHYLENE 화물을 운송하는 조건이다.

이번 계약은 용선료, 연료비, 항비 및 OPERATION FEE를 보전받는 조건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플라리스쉬핑

선박펀드로 벌커 2척 매입

플라리스쉬핑(대표 김완중)이 선박펀드를 이용해 벌커 2척을 매입한다.

국토해양부는 민간 선박펀드인 '아시아퍼시픽23호', '아시아퍼시픽24호' 선박투자회사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첫 펀드 출시 후 금번까지 총 135개 선박투자회사를 인가하여 9.1조원의 선박금융을 조성, 193척의 선박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인가된 아시아퍼시픽 23·24호는 금융기관(수출입은행) 차입과 기관투자자 투자 모집, 선사 자담 등을 통해 펀드 재원을 조달, 펀드별로 각각 중고 벌크선 1척을 매입하여 플라리스쉬핑에 소유권취득조건부나용선(BBC/HP)으로 5년간 대선하고, 플라리스쉬핑은 대선한 선박을 대형화주와 장기화물운송계약에 투입하여 펀드 관련 차입 원리금 및 배당 등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한편 아시아퍼시픽 23호·24호 선박펀드는 KSF선박금융(주)이 운용한다.

한진해운

삼성중과 친환경 선박 공동 개발

한진해운(대표 김영민)과 삼성중공업은 12월 27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한진해운 해사그룹장 정재순 상무와 삼성중공업 조선해양연구소장 황보승면 전무 등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박 에너지 효율 관리 및 선단 관리에 관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

한진해운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중공업과 함께 선

박의 운항 중 소비되는 에너지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선박 통합 에너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선박의 연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관리함으로써 연료 소모량을 최대 15%까지 절감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한진해운이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선박 및 선단 관리 노하우와 삼성중공업의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접목 실제 선박 운용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여 국내 해운사와 조선소의 세계 최첨단의 기술력과 운항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서 한진해운 해사그룹장 정재순 상무는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는 운항원가 절감을 통해 해운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며, 해운산업 전체의 과제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반을 구축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스템은 2013년 5월 4,600TEU급 컨테이너선에 장착되어 실선 테스트를 진행, 경과를 살펴 전 선대로 보급될 예정이다.

현대상선

유창근 사장, 신년사 통해 수익력 극대화 강조

현대상선(사장 유창근)은 2013년 신년사를 통해 수익력 극대화와 집중력과 치열함으로 무장할 것을 강조했다.

유창근 현대상선 신임 사장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수익력 극대화라고 강조하고, 영업 수익성 개선과 비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테이너와 벌크, 육상과 해상 구분 없이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하며, 특히 부문간 부서간 협력의 시너지가 수익력 극대화의 주원동력이라면서 회사 전체의 유익을 우선시해 생각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신뢰할 시장정보수집과 유연한 의사결정시스템의 구축을 강조했다. 믿음만한 시장 정보원을 확보하

고 이를 바탕으로 내부적으로 신속하게 Consensus를 만들어 내는 의사결정시스템을 구축해 변화하는 시장에 발 빠르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과학적 분석과 적기 대응을 위해 IT의 적극 활용을 강조했다. 과거와 현재의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분석자료가 명철한 지혜를 만날 때 합리적인 계획과 전략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유사장은 마지막으로 집중력과 치열함으로 무장하자면서 "사명감과 애사심을 바탕으로 일에 대한 집중력과 치열함은 현대상선 기업문화의 전통이며 자랑"이라고 강조했다.

부산항만공사

북항 컨테이너부두 임대료 인하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는 12월 27일 열린 제119회 BPA 항만위원회에서 이같은 '부산항 컨테이너부두 임대료 기준설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BPA는 지난 4월부터 부산항 하역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북항과 신항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부산항 컨테이너부두 임대료 산정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의뢰, 추진했다.

BPA는 지난 2010년에 신항 개장 등에 따른 부산항의 제반여건을 고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북항의 임대료를 9% 인하하면서 2013년부터 적용할 임대료는 올해 전면 재조정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임대료 산정은 각 부두의 내용연수와 장비 투자 주기를 고려, 임대료 산정기간은 40년, 물가상승률 2.76%, 운행사 수익률 9.24% 등을 전제로 책정했으며 신항은 북항보다 선석별 처리능력을 12.5% 높게 반영, 계산했다.

KMI의 연구용역결과 내년 부산항의 컨테이너부두 임대료는 올해 대비 북항은 평균 15.2% 인하, 신항은 부

두 신규 개장에 따른 초기 자본투자 등을 감안, 현행 임대료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왔다.

BPA는 이 용역 결과가 항만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될 새 임대료를 각 부두 운영사에 통보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

제17회 한국유통대상 수상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가 '제17회 한국유통대상' 고용창출 부문상 수상기업에 선정됐다.

한국유통대상은 물류, 유통 및 관련산업 분야에서 고객서비스 혁신, 동반성장, 고용창출 등에 공헌한 기업과 유공자를 가려 시상하는 제도로 17회 동안 개최되어 전통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관련 업계와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해 온 상이다. 올해 유통대상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고 지식경제부가 후원했다.

IPA의 이번 수상은 특히 지난해 고객서비스혁신 부문상(지식경제부장관상) 수상에 이은 2년 연속 본상 수상으로, 12월 17일 공사 임직원을 대표해 물류기획실 마문식 부장이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 상을 받았다.

IPA는 인천신항과 새 국제여객부두의 건설·항만 배후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 프로젝트와 부대사업 등을 통해 2011년에만 약 18,000여개의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평가됐다. 아웃소싱을 통해 약 400여개, 투자사업 발주를 통해 약 17,500여개,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약 57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울산항만공사

신용등급 'AAA' 획득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는 공사 창립 이후 최초로 실시한 기관신용평가에서 한국신용평가(주)로부터 'AAA/안정적'으로 평가 받았다고 12월 10일 밝혔다.

UPA가 획득한 'AAA' 등급은 신용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이며, 향후 전망도 '안정적'으로 앞으로 1~2년 내에 등급의 변동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신용평가사 부여되는 최고 등급이다.

한국신용평가(주)는 △ 정부가 전액 출자한 공기업으로 확고한 법적·제도적 지위에 기반한 안정적인 사업 구조 △ 우수한 경영성과 및 재무구조 등을 최고 신용등급을 부여한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다.

2011년 기준 UPA는 총 매출액 591억원, 당기순이익 240억원을 기록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고객만족도 최고등급 획득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1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월 3일 밝혔다.

201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는 2011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경험한 고객을 대상으로 2012년 9~11월까지 3개월 동안 현장설사를 통해 실시됐다.

공사는 고객을 위한 서비스품질 관리와 다양한 고객과의 소통 활동을 통해 이번에 고객만족도 최고등급을 획득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선급

등록톤수 6000만톤 달성

한국선급(회장 오공균)은 지난 1월 23일 기준으로 2,845척에 6,006만톤의 등록선을 보유하여 등록톤수

6,000만톤을 달성했다.

등록톤수 6,000만톤 달성은 1962년 2척(4,875톤)의 등록검사를 시행한 이후 51년 만의 일로 그동안 한국선급이 세계일류선급으로의 도약을 위해 기술력과 신뢰도 향상에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창립 초기에는 주로 선박용품 검사뿐이었으나 국내 해운 및 조선업의 발전과 더불어 검사기술능력의 점진적인 향상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 관련업체로부터도 신임을 얻기 시작했다. 이에 등록톤수는 1987년에 1,000만톤으로 증가하였고, 1988년 IACS(국제선급연합회) 정회원 가입 및 1990년 런던 보험선급약관(ICC) 등재로 톤수가 더욱 증가되어 2001년에 2,000만톤, 2008년에 3,000만톤을 달성했다.

이어 작년에는 일류선급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5,000만톤을 돌파했고, 한국선급 역사상 최초로 한해 등록톤수 1,000만톤을 기록하는 경경사를 맞기도 했다.

오공균 회장은 "올해는 등록톤수 7,200만톤 달성을 목표로 한국선급의 검사역량과 선박 생애 주기관리시스템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선박안전관리체계를 완전히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해운조합

무선발권시스템 신규 구축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인수)은 국민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승선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신개념의 무선발권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조합은 지난 2006년 낙도지역 기항지와 선상 발권용으로 PDA를 도입하여 운영하였으나, 장비의 노후화로 발권 및 통신 속도가 저하되고, 유지보수의 한계성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관련 서비스 개선이 시급함에 따라 최신정보통신 기술을 접목시킨 안정적인 통신 속도를 보장하고 휴대가 편리한 스마트 단말기 도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저비용·고효율의 스마트 단말기와 카드리더기 일체형프린터를 이용한 새로운 방식의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였으며 2013년 1월부터 목포 등 7개 지역에서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된 무선발권시스템은 기존 PDA 방식에서 운영되던 시스템을 보다 upgrade하여 승선권 구입범위를 여객에서 차량과 화물까지 확대하여 승선권 구입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제수단을 다양화하여 여객선 이용객 편의를 개선했다.

또한 자체개발로 유지보수와 운영이 용이해져 여객선사와 여객선 이용객의 개선사항을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여객선사 발권업무 효율화를 도모했다고 한다.

조사·관찰을 통해 증도-화도간 노두길 서식처 기능을 개선·복원했고, 전국에 16개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며 생태관광 활성화와 대국민 인식증진에도 힘쓰고 있다.

곽인섭 이사장은 “창립 5주년을 계기로 공단의 결속력을 다지는 것은 물론 해양환경관리에 대한 전문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바다는 국민들의 삶의 공간이자 해양산업의 기반이므로 생명의 바다, 생산의 바다, 생활의 바다를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창립 5주년 맞아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곽인섭)이 1월 21일 창립 5주년을 맞았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은 1997년 설립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의 유류오염 방제 노하우와 인프라를 계승한 지난 5년간 해상 유출유 방제, 주요항만 수질개선, 해양생태계 조사·연구, 국민들의 해양환경에 대한 인식증진, 해양환경 전문교육 및 국제협력 등을 추진해 우리나라 해양환경의 보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 50여 건의 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한 방제조치로 재난대응 기관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2007년에는 우리나라 사상 최대의 유류오염 사고인 허베이 스피리트호 방제작업을 조기에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피해확산을 방지했고, 2011년 7월에는 포함 앞바다에 23년간 침몰해 있던 경신호의 잔존유 634kℓ를 신기술로 완벽히 제거하는데, 성공하여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했다.

또한 동해 남부·경상·제주·대이작도 해양생태계

한국해양대학교

'2012년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한국해양대학교(총장 박한일)는 12월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평가가원이 2012년도에 실시한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 부·울·경 국립대학 중 유일하게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이날 한국해양대를 포함해 전국 30개 대학에 대한 인증 결과를 발표했다.

2011년도에 처음 시행된 '대학기관평가인증'은 교육수요자에게 대학교육의 질을 보증하고, 대학의 지속적인 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돼 2012년 2차년도 평가를 시행했다.

대학평가인증위원회(위원장 권순기, 경상대학교 총장)는 지난 12월 18일 인증위원회 회의에서 2012년도 인증 신청대학의 판정 결과를 최종 의결했다. 이번에 '인증' 판정을 받은 대학은 향후 5년 동안 인증이 유효하다.

5년 주기로 시행되는 '대학기관평가인증'은 대교협 대학평가가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인정기관으로 지정(10.11.11)받은 이후, 2011년도에 31개 대학이 신청하여 평가를 받았고, 2012년도에는 30개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시행했다.